

다산포럼

유지나



나는 늘 궁금한 게 있다. ‘마이 웨이’ 같은 노래를 들을 때면 더욱 그렇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돌아보는 인생 여정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충만한 나의 길을 찬미한다. “난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서며 늘 담당했고, 내 방식대로 행동했지”라며 그윽하게 내뿜는 말년에 들어선 인간은 멋지다.

영화 ‘친구’에서 유오성이 이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노래방 장면은 아이러니컬한 효과마저 보이며 몽롱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조폭에게도 ‘나의 길 가기’라는 나를 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그렇다. 누구나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 맨 얼굴로 자신의 삶을 직시하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여자들은 왜 ‘마이 웨이’를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세상이 말하는 여자의 길, 누군가의 딸-아내-어머니-며느리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관 삼중지도에 얼마까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세상과 직면하는 삶은 여자

에겐 불가능한 것일까?

문정희님의 시처럼 “화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크고 넓은 세상에까지 못하고/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한때 자신의 본색에 걸맞은 꿈을 가졌던 그 많은 여학생들이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로 사느라 아홉마라는 무리 속에 묻혀 버리고 만 것일까? 나의 길이 곧 정해진 여자의 길이라는 집단취면에 빠진 것일까? ‘마이 웨이’를 부를 주제가 못 되는 게 여자의 본색일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속설, 어버이날이면 쏟아져 나오는 헌신적인 모성 찬양론 속에 개봉한 ‘씨니’는 그런 궁금증을 통과하며 답을 준다. 80년대 고등학교생이었던 7공주와 ‘씨니’가 25년 만에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재회한다.

먹고 살 만하지만 아내와 엄마란 신분으로 맥없이 살아가던 나미는 화가가 꿈이었다. 쌍꺼풀 만들기에 매진했던 장미는 실적 부진한 보험설계사로 고달픈 삶에 치여 산다. 입에 욕을 물고 살던 활력소녀 진희는 성형여왕이자 부자 사모님으로 변신했다. 문학소녀 금옥은 시집살이에 놀려 눈치보기 9단이 되버렸다. 미스코리아를 꿈꾸던 국희는 술집 여자로 전락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버렸다. 냉정한 얼음공주 수지는 행방불명이다. ‘씨니’의 대장이었던 춘화는 독신 사장으로 성공했

여자본색, ‘씨니’의 힘

지만 시한부 말기암 환자이다.

25년간 저마다 이유로, 아마 여자의 길을 가느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았던 여자들이 소녀시절에 접속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전환점에 들어선다. 우정의 힘이다. 여자를 살리는 건 여자친구라는 당연한 명제가 신나는 디스코 음악에 실려 웃고 울리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짜나간다.

특히 음악에 딱 맞는 이미지로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강형철 감독의 연출력은 기차게 가슴을 후려친다. 이틀테면 악을 쓰며 고통을 겪던 춘화의 병실에 들어

와 조심스레 사진을 보는 나미 뒤에서 춘화가 흘릴거린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80년대를 풍미한 ‘빙글빙글’이란 가수 나미의 신나는 디스코 노래가 시들어가던 이들에게 만남이라 주문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옛친구와의 만남이 결국 꿈이었던 자신의 본색과 만나는 일생일대의 만남으로 접화된다. 영화 보기의 매력은 80년대를 노스탤지어 감성코드로 살려낸 장면들이다. ‘라불’의 주제곡 ‘리얼리티’가 사랑을 대변하던 시대, 민주화 투쟁장면에 당대를 휩쓴 노래의 날개를 타고 심상하게 비상한다. 최무탄과 방패가 난무하는 거리투쟁이 ‘뒤취 바이 터취’에 실려 소녀들의 격돌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면에선 웃음이 폭발한다.

웃고 울며 영화를 보노라면 일곱 여자들의 본색이 나의 길 가기로 진화되는 막판에 도달하게 된다. “씨니, 과거 내 인생엔 비가 내렸지. 씨니, 네가 미소짓자 고통이 지워졌어. 이제 어두운 날들은 가고, 밝은 날들이 왔어.” 보니옌의 ‘씨니’를 부르며 춤추는 그녀들. 드디어 여자의 본색을 발견하고 힘까지 주는 한국영화의 탄생에 축하를 올린다. <동국대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임진경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가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가족들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한 가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이 되는 한 형태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비밀리에 또는 적당히 키워서 집안일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했던 입양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가슴으로 낳은 내 자녀로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사회에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입양

입양문화와 사회인식

한 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여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고 사회를 향해 입양을 홍보하며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하고 있다. 예전에 입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 바로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입양가족들이 좀 더 나은 입양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부모교육과 아동들의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양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하지만, 입양가족들만이 입양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모양 저모양으로 판다고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해 줄 것인가? 얼마나 전 도내에 입양문화에 대해 특강을 간 적이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한 정책과 지원, 역사, 입양할 때의 자격과 절차, 입양의 종류, 국외·국내 입양의 장·단점, 앞으로의 입양문화의 방향

과 우리 가정의 입양이야기를 하고 왔다. 특강 후기 글들이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더 열심히 반편견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올해로 6회째 맞는 입양의 날(5월11일)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 넓게 보게 되면 그들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줄은 알지만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소외되고 일반화되지 못한 그룹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요보호아동들에게 입양은 최선책이 아니다. 될 수 있으면 친생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나 친생부모에게도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감 있는 삶이다. 하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 때 입양, 위탁, 그룹홈, 양육시설로 보내지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한가족 안으로 입양되는 것이기에 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떠돌고는 있지만 이미 발생되어진 아동들을 진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을 해서 아픈 상처를 승화시켜 나라의 쓰임 받는 자들로 세우갈 것인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어른들은 없는 것 같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입양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 위주이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설정이어서 입양을 생각하는 가정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스럽다. 또한, 공영매체들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너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붙여서 사용하므로 인해 입양가족들이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함들이 입양 홍보와 입양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5)에 한아이(1)를 한가정(1)에서 입양하자는 뜻이다. 아직도 시설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조그마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시길 않으시렵니까?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 대표>

기고



류상권

다른 봉사활동을 했을 때와 달리 이번 봉사활동을 끝내고 나서는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버이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오늘 집에 가는 날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효도 하라고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무등정신요양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 잘 살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2주 전부터 어떤 내용으로 활동할 것인지 계획했습니다. 카네이션, 케이크, 간식, 노래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동아리(광곡두드림봉사회)는 5명의 친구가 활동

하고 있지만 동아리 봉사활동 소식을 들은 기생이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이번엔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마음도 뿌듯합니다.

질투든 초록과 함께 어느새 여름을 느끼게 하는 더운 바람을 맞이하며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떤 자들이 들어와 몇몇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레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나 봅니다. 한껏 들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마저 가족이 아무도 찾지 않아 더 외로움을 타고 있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해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을 모시고 축하 행사를 하였습니다. 준비해간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과자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어머님

해’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같이 가신 어머니 한분이 각설이 분장을 하고 신나는 노래로 축하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다연이, 나, 영석이, 하운이, 현원이, 기선이 순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들도 지지 않으시려고 “나요! 나요!”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외위로 노래도 많이 아시고, 특히 동요를 많이 아시고 계셔서 ‘반달’, ‘풍덩 풍덩’, ‘곰세마리’, ‘귀여운 꼬마’ 등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모두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과자도 먹고 할머니 어께와 다리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또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서 밖에 나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간 다과를 방마다 돌아다니며 배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날과 날씨가 유난히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도 같이 가신 엄마들한테 “엄마! 왜 인제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나 배 아파.” 하시며, 계속 여러광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은 유독 더 외로웠는지 계속 “엄마, 엄마”를 불러대면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과 무등정신요양원 할머니들은 그늘에 앉아 우리 동아리 친구들과 할아버지집이 나뉘어져 축구경기 하는 것을 관람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집의 실력이 더 좋아져서 결국은 4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할아버지들이 지치면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접어야 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을 모두 즐겁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뿌듯했지만 가슴 한편으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 없는 쓸쓸한 요양원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롭고, 지친 가족이 위로해 어르신들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광주과학고 2학년 3반>

도로 아래 고여 있다가 버스나 트럭처럼 육중한 차들이 지날 때마다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멍으로 뚫려버린다는 것이다.

도로보수 하나라도 온전하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도로 보수 대중대중...옴퐁 파인 곳 많아 사고 위험

운전자들이 항상 도로에서 느끼는 불편과 위험 중에 한가지가 있다. 비가 많이 내린 뒤 도로 한가운데 뱅뱅 뿔려 있는 구멍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에도 많은 비가 내려 시내 도로 곳곳에는 많은 구멍이 뚫렸었다.

이렇게 도로에 큰 구멍이 나 있으면 운전 중 타이어가 펑크나기 일쑤다. 또한,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구멍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거나, 혹은 그 구멍 앞에서 급정거를 하려다가 뒤에서 부딪히는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공사가 부실해 균열이 생기거나 구멍이 뚫린 후 땀질로 채워넣는 공사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땀질하는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일반도로를 만들 때는 골재들을 붙이는 접착제가 아스팔트이다. 하지만, 도로를 땀질할 때는 접착제의 일종인 에폭시를 사용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성질이 다른 두 재료가 완전하게 붙지 않아 빗물을 잔뜩 먹으면 그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그 물들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상무소각장 폐쇄’ 책임 소재 반드시 가려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 상무소각장이 이르면 2013년께 폐쇄된다고 한다. 소각장이 상무 신도심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광주시가 10년 만에 폐기물 자원화라는 명분으로 문을 닫기로 것이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소각과 매립 방식의 폐기물 처리를 에너지 등의 자원화로 바꾸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고체연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소각장이 폐쇄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본다.

무려 743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 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소각장 폐쇄 발표는 광주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온대 시장도 취임 이후 “계획 단계부터 잘못됐다”며 일기 중 소각장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사실, 상무소각장 폐쇄는 지난 1998

년 완공되고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3년 간이나 가동을 중단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가동 시 안전도 성능검사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해 집단반발이 상존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포항공단 환경영향조사 용역팀이 상무소각장 주변에 카드뮴과 니켈 등 일부 중금속이 검출되고, 다이옥신이 상무지구 아파트 전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발표했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거부한 것은 폐쇄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건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폐쇄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광주시 의회도 이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데 게 역할이자, 도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을 알리고 책임 소재를 가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CEO 임면 쇄신 시급하다

지방공기업 대표 자리를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공기업 CEO는 ‘단체장 측근 퇴직 공무원 및 정치인의 노후 보장용’이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134개 중 CEO가 공직이거나 직무대행 체제인 9개를 제외한 125개 CEO의 74.8%가 지방 공무원 또는 정치인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단 이사장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90.9%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전남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쯤 되면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지방공기업 대표를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경영 능력이 검증된 공무원 출신 지방공기업 CEO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지방공기업의 빛이

무려 42조6천818억 원, 적자 규모는 4천74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이 CEO의 경영능력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단체장이 지방공기업 CEO 자리를 ‘측근 챙기기’ 방편으로 이용하는 한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피할 수 없다. 경영을 모르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신이 단체장 낙하산으로 내려갈 경우 지방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의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우선 CEO의 임면 과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모제는 이미 대상을 낙점해 놓고 진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임명 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 대표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선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은 요원할 뿐이다.

無 等 鼓

미안마(옛 버마)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아웅산 수치 여사(66)다. 미얀마 군부 독재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수치 여사는 미얀마 민주화의 기수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치 여사는 지난 1990년 이후 군부 정권에 의해 가택연금과 석방을 반복해 왔다. 1990년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승리했으나 1988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그녀를 가택연금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는 등 수치 여사는 지금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15년 가량을 구금상태에서 지내왔다. 이 같은 탄압에도 그녀는

1991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진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지난해 가택연금이 해제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 실시된 총선에 불참함으로써 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얀마 군정이 총선이 실시되기 전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총선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새 선거법을 발

표했다. 수치 여사는 2009년 연금된 가택을 방문한 한 미국인을 잡지 머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수치 여사는 총선을 불공정 선기로 규정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군부 정권의 일토당도않은 처사에 대한 수치 여사의 항거방식이었다.

수치 여사의 민주화 투쟁은 언뜻 군사정권은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그녀를 가택연금했다. 1980년대 한국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신군부의 억압과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마침내 군부정권을 종식시켰던 경험에 있어 수치 여사와 미얀마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5·18민중항쟁 31주년을 앞두고 수치 여사가 다시 떠오른다. 5·18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어 수치 여사는 우리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군부정권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수치 여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